

데이터센터 신설·증설 수조원 국가·기업 AI기술독점 현실로

자금력 충분한 대기업 중심 개발
“국가 차원 AI 인프라 구축 필수
글로벌 협력 통해 격차 줄어야”

인공지능(AI)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센터 신설 및 증설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한 곳을 세우는 데 수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면서 이러한 경쟁이 자금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25 회계연도가 끝나는 올해 6월까지 데이터센터 건설에 800억 달러(약 117조76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MS,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4개사의 총 자본 지출인 2090억 달러(약 308조원)의 약 38%에 달하는 규모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3일(현지시간) MS 공식 블로그를 통해 “MS는 2025 회계연도에 AI 모델을 훈련하고 전 세계에 AI·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며 “투자 금액의 절반 이상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MS의 이러한 움직임은 AI 기술 선점을 위한 전략으로, 생성형 AI 모델의 훈련 및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MS는 전 세계적으로 30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자체 AI 개발까지 AI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MS는 이미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국적 정보분석업체 비주얼캐피탈리스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MS는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AI 데이터센터에 460억 달러(약 67조원)를 투자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AI 데이터센터에 투자했다.

같은 기간 구글은 330억 달러(약 48조1536억원)를, 메타는 270억 달러(약 39조4000억원), 아마존은 19억 달러(약 27조7200억원)를 AI 데이터센터 운영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다. 아마존은 현재 215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규모나 용량 면에서는 MS의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국가 간 기술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과 기술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국가들은 AI 경쟁에서 점차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모델의 훈련 비용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술을 독점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구글과 아마존은 AI 모델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추론)보다 훈련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AI 모델 학습 비용이 데이터셋 구축, 전력 소비, 고성능 GPU 등 필수 인프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024년 AI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20% 증액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 업계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구축은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의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기술력 격차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게임업계, 다양한 장르 신작 예고… 수익개선 속도낸다

넥슨 3월말 ‘퍼스트 버서커: 카잔’
크래프톤 ‘인조이 얼리엑세스’ 예정
넷마블 상·하반기 8종 게임 공개

지난해 도전과 변화에 초점을 맞춘 게임업계가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한 수익개선에 속력을 낸다.

우선 게임사들은 본업인 신작개발에 집중한다. 특히 그간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에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장르 확장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오픈월드 액션 RPG, 시뮬레이션 게임 등 장르가 다양하고 대부분 PC와 콘솔 등 멀티플랫폼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장르 확장이 글로벌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실적 개선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우선 넥슨은 하드코어 액션 멀티플랫폼 역할수행게임(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 (카잔)을 오는 3월28일 글로벌에 정식 출시한다. 카잔은 중국에서 역대급으로 흥행 몰이를 한 ‘던전앤파이터’ IP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중국 출시를 필두로 현지화 작업을 이어간다. 중국출시는 텐센트 게임즈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었다. 이외에도 올해 넥슨은 서바이벌 슈터 ‘아크레이더스’ 등을 선보인다.

같은날 크래프톤도 시뮬레이션 게임 ‘인조이(inZOi)’의 얼리 액세스를 시작한다. 인조이는 기술적·사업적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 /넥슨



나 혼자만 레벨업:아라이즈 /넷마블

측면에서 특이점을 지닌다. 크래프톤은 AI(인공지능) 딥러닝본부가 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LM) 기반의 챗봇 기능과 모션 생성 기술을 인조이에 첫 적용한다. 이른바 ‘스케일업 더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다. 인조이는 또 크래프톤의 ‘베틀그라운드’ 단일 의존도를 줄여 기업가치 향상 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은 올해 8종의 신작을 글로벌 시장에 공개한다. 상반기엔 ‘킹 오브 파이터 AFK’, ‘RF 온라인 넥스트’,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세븐나이츠 리

버스’를, 하반기엔 ‘The RED: 피의 계승자’,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몬길: 스타 다이브, 데미스 리본’ 등이다. 펠어비스가 6년간 개발한 ‘붉은사막’도 올 4·4분기 공개된다. 붉은사막은 펠어비스의 차세대 게임 엔진 ‘블랙스페이스 엔진’으로 개발 중인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붉은사막은 멀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멀티 플랫폼은 모바일과 PC·콘솔 등의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수익 파이프라인이 다변화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엔씨는 아이온2에 실적 반등의 기대를 걸고 있다. 각각 독립 스튜디오 체제로 개발중인 ‘LLL’과 ‘TACTAN(택탄)’도 올해 공개된다.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발랄라 서바이벌’은 올 1분기 정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 7일 만에 100만명을 넘어서며 유저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게임업계에 국내 게임업계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 올해를 수익성과 지속성까지 함께 가져가야 하는 중요한 일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 트렌드는 유저들이 쉽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유저 확보를 위해 앞으로 대처에 유연해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양자컴퓨터 관련주’ 관심집중

아이원플러스 등 단기 급등
금투업계 “변동성 유의해야”

미국 뉴욕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컴퓨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양자컴퓨팅 기술은 인공지능(AI)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미래 먹거리로도 꼽히며,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관련 섹터의 주가가 단기 급등한 만큼 단순 기대만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경계심리도 확산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양자관련주로 꼽히는 아이원플러스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94%(447원) 오른 194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달 6일과 비교하면 222%가량 오른 수치로, 양자컴퓨터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엑스케이트(+116.23%) ▲코위버(+101.19%) ▲바이오그리드바이스(+105.44%) 등 양자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이 기간동안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뉴욕 증시에서도 양자컴퓨팅이 테마주로 급부상하며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스크(+

1935%) ▲리케티컴퓨팅(+334.25%) ▲퀀텀컴퓨팅(+120.68%) ▲디웨이브 시스템(+80.63%) ▲아이온큐(+25.81%) 등이 양자컴퓨터 관련주로 떠오르며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양자컴퓨팅 관련 종목이 투자자들의 각광 받으며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테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금투업계는 양자컴퓨팅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섹터이고 현재 투자과열 현상이 짙어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한국첨단소재의 경우는 이날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돼 6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며, 아이원플러스도 소수 계좌매수 관여 과다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박우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AI 혁신과 양자컴퓨터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테마주 특성상 연율화 변동성 90% 수준의 급등락을 반복하므로 투자 시점 판단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野 “최 대행, 질서파괴 행위 방관·동조”

>> 1면 ‘탄핵 정국에…’서 계속

영국 BBC방송 역시 “합법적인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인력이 막아서는데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보도했다.

야당은 최 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사실상 질서파괴 행위를 방관, 동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3일)에 이어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선을 기점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최 대행은 이날 내한 중인 토니 블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관계·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체포 영장 집행을 제외하고, 정치·외교 일정 챙기기에 나선 모습이다. 오는 8일부터는 각 부처 장관의 신년업무보고도 받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건설업계 경영난 해소 위한 지원책 필요”

>> 1면 ‘건설 불황 악화로’서 계속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내 경제의 저성장세가 불가피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증가로 전반적인 건설투자의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국내경제의 침체와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정부의 정책 마련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특히, 건설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23년 건설기업 BSI는 63.1로 2010~2024년까지 평균치 65.1을 밑돌았으며, 지난해 1~8

월은 51.1까지 낮아졌다.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재무 건전성 악화되면서 신용도 관리와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건설업에 대해 실적전망 ‘저하’, 신용등급 방향성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기업평가 역시 건설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건설업계 신용도는 진행 및 예정 프로젝트의 분양 성과를 통한 운전자본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렸다”며 “건설사들의 수익은 2023년 이후 수주 물량의 기성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שמ 기자 smahn@